

인쇄하기



인쇄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HOME \(/\)](#) > [로컬+ \(/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7\)](/news/articleList.html?sc_section_code=S1N17) > [경기 \(/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87\)](/news/articleList.html?sc_sub_section_code=S2N87)

## 경기도, 2년 만에 '2021 DMZ RUN' 개최

👤 임순만 기자 | 🕒 승인 2021.11.01

### | 평화통일마라톤 3개 프로그램 운영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DMZ RUN'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 아래 올해도 취소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정부의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발표에 맞추어 2년 만에 개최된다.

'DMZ RUN'은 비무장지대(DMZ) 일원을 달리며 생태·문화·역사적 가치를 체험하고, 평화·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열리는 경기도의 대표 스포츠 체험행사다.

올해 행사는 DMZ 155마일 걷기, Tour de DMZ(자전거대회), 평화통일마라톤 총 3가지로 다채롭게 구성했으며, Tour de DMZ(자전거대회), 평화통일마라톤의 경우 오는 20·21일, 27·28일 총 4일간 오전·오후 별로 8차례, DMZ 155마일 걷기의 경우 20·21일, 27·28일 나흘간 4회 개최한다.

특히, DMZ 155마일 걷기는 군사분계선 길이 155마일을, 평화통일마라톤의 '9.19km 코스'와 '4.27km 코스'는 각각 9.19 평양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뜻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먼저 'DMZ 155마일 걷기'는 DMZ 평화누리길 주요 구간을 직접 걸어 보며 DMZ의 의미를 되새기고 평화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행사다. 김포, 파주, 연천 평화누리길에 각각 마련된 코스 중 걷고 싶은 길을 선택해 참가할 수 있으며, 반환점을 찍고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Tour de DMZ(자전거대회)'는 '평화'의 페달을 밟으며 역사와 자연이 숨쉬는 DMZ의 비경을 만끽해보는 행사다. 155마일 걷기와 마찬가지로 DMZ 평화누리자전거길 중 김포, 파주, 연천 3개 코스로 나눠 운영하며, 지역별로 초급, 중급, 고급 중 자신의 실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참가할 수 있다.

'평화통일마라톤'은 금단의 땅이었던 DMZ 일원에서 마라톤을 즐기며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파주 임진강변 생태탐방로에서 열릴 9.19km 코스와 4.27km 코스, 온라인 언택트 레이스로 나눠 진행한다.

이번 'DMZ RUN'의 참가비는 3만원(1만 원 상당 기념품 제공, 2만원 기부)이며, 회당 참가인원은 Tour de DMZ(자전거대회), 평화통일마라톤 최대 49명, DMZ 155마일 걷기의 경우 최대 499명이다.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오프라인 대회는 2차 백신접종 완료자 또는 경기 전 PCR 검사 48시간 내 음성 확인자여야 참가할 수 있다.

신준영 도 평화협력국장은 1일 "이번 대회로 국민들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순만 기자 기자

